

» 2009년 채란업 결산

## 산란계 의무자조금 거출로 새 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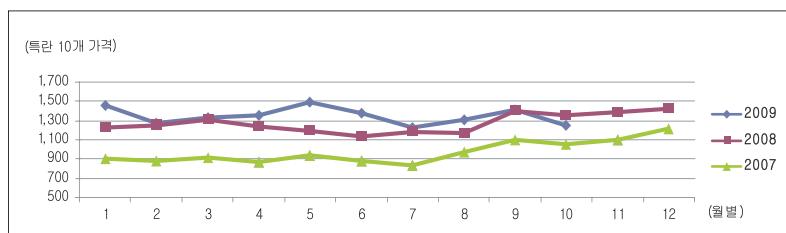


오승은  
본회 경영지원부 대리  
(채란업무 담당)

2009년도 채란업계는 난제로 가득한 한해였다고 보여진다. 물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산란계의무자조금의 도입, 계란유통구조개선에 대한 과제, 지역 계란집하장 설립, 신종인플루엔자와 계란 품질관련 방송보도로 인한 소비감소, FTA 타결로 인한 불안요소, 동물복지와 관련한 사회 분위기 등 풀어야할 숙제들이 어느 해 보다도 많은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연일 강세를 보이는 병아리, 중추 가격과 안정화 되지 않는 사료가격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계란가격 또한 연 평균 특란 기준 130원 정도의 발표가격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 농가에서 거래하는 가격은 기준가격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올 한해 어려웠던 채란업계는 변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으며,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도표 1)연도별 계란가격 추이

### 산란계의무자조금 도입

올해 채란업계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하면 양계산업의 오랜 숙원이



었던 산란계의무자조금 거출이 올 6월 1일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출범 시작 단계에서는 방향설정의 혼란과 농가들의 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었으나, 산란계자조금 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각 농가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과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농가들이 다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자조금 수납기관인 각 도계장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 무임승차하는 농가가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자조금사업을 먼저 추진한 타 축종의 경우 연간 자조금 사업규모가 한우 220억, 낙농 90억, 양돈이 160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산란계의무자조금 사업이 타 축종에 비해 규모도 작고 시작 또한 뒤쳐져

있지만, 자조금 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가에서 땀 흘리며 고생하여 거출한 소중한 자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으로 가장 모범적인 자조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채란인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을 같이 하여야 하겠다.

### **계란유통구조개선 과제**

채란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채란업계의 해결해야할 문제 1위로 계란의 유통구조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계란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 근대적이고 취약한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채란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계란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문제점은 어제오늘

단위 : 천수, 가구, %)

구 분	2008				2009				증감(%)	
	3	6	9	12	3	6	9	전분기	전년동기	
산 란 계	총마리수 25주령이상 사육가구수	57,850 44,889 1,814	59,723 43,575 1,714	58,200 42,838 1,713	59,168 44,387 1,711	60,237 46,348 1,750	61,143 46,096 1,709	61,998 47,071 1,712	855(1.4) 975(2.1) 3(0.2)	3,798(6.5) 4,233(9.9) -1(-0.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일이 아니라 채란관계자라면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의 경우 적극적인 계란의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계란산업발전대책 연구회를 구성하였다. 연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란산업 전반의 발전 및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을 통해 계란산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 계란연구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유통구조를 개선 할 수 있는 채란인의 의견을 정책 반영에 적극 건의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계란유통구조개선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지적되어 오던 문제로 획기적인 개선대책 없이는 앞으로의 채란계산업 발전을 기대 할 수 없을 것 이므로, 올해에 이어 내년, 내후년 개선이 이루어 질 때까지 우리 채란인 모두가 합리적인 유통구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산란계 사육수수의 지속적인 증가세

2009년 10월까지 산란실용계 판매수수가 3천만수에 육박하면서 연말까지 역대 최대수수인 3천6백만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09년 상반기에 산란실용계 판매수수가

많았던 점을 미루어 볼 때 2009년 말 현재 생산에 가담하는 신계군의 수수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런 추세라면 2010년 계란의 과잉생산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농림부에서 발표한 분기별 가축통계에 따르면 사육 가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총 사육수수는 전년 같은 기간대비 6.5%가 증가하여 6천2백만수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산란에 가담하는 25주령이상 계군의 사육수수는 전년과 비교하여 9.9%나 증가하여 채란업계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30원 이상이었던 할인폭(D/C)을 줄이고 난가 현실화를 통해 큰 폭의 난가시세가 하락되었으나 추석명절 이후 다시 수도권지역의 농가수취가격은 발표되는 난가에서 큰 폭의 D/C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계란의 과잉생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깨끗하고 신선한 계란생산과 적정사육수수 사육을 통한 계란생산량의 유지만이 근본적인 D/C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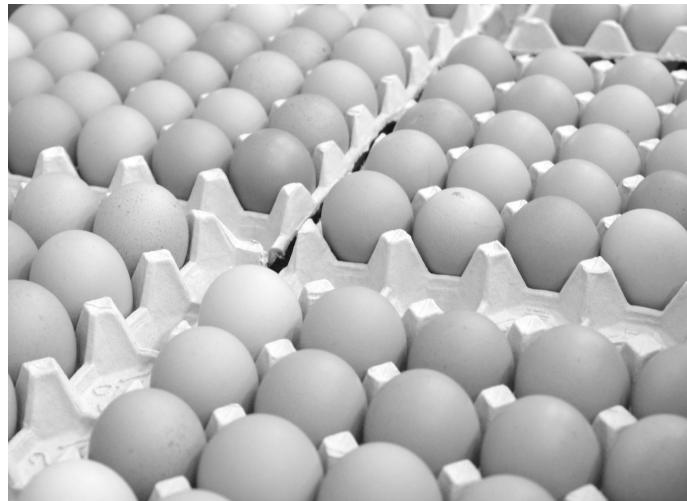
지속되는 이러한 힘든 상황은 산란노계의 도태지연과 강제환우로 인한 결과로서 이러한 사육실태가 이어진다면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난가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급조절에 채란인들이 뜻

을 한데 모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채란업계의 진취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 계란 소비상황의 심각성

올 한해 계란 소비상황은 예년과 다르게 명절 특수로 인한 가수요 현상도 없었고, 주기별 성수기 기간에도 판매가 저조하였고, 대형할인 매장의 세일기간 매출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5~6월에는 가금티프스, 뉴모바이러스 등의 질병이 많은 농가에 피해를 끼쳐 여름철 난가와 수급상황은 크게 힘들지 않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지난 추석 명절 이후 계란 재고량이 많아 한 달 사이에 네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국의 난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친데 덮친격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올 한해 최고의 이슈인 신종 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으며, 학생들의 발병률이 높아져 대다수의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가 계란을 비롯한 식자재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다. 게다가 계란품질관련 문제가 연일 방송에 보도되면서 계란소비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현재 까지 소비위축은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액란가공업체에서 낮은 난가의 계란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큰 체화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계란 유통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소비패턴이 점점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계란에 대한 지적 수준이 향상되어 계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계란 품질이 계란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



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소비자의 계란 품질에 대한 높은 관심은 매스컴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크고 작은 계란품질 관련된 내용이 방송 또는 신문을 통해 전파되면서 계란소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기관과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위생란 및 위생시설의 기준을 수립하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이 법제화 될 경우 각 산란계 농장에서도 이로 인한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점점 제약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위생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인정받고, 계란가공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변화를 통하여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채란인들이 채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각기 고생한 노동력에 걸 맞는 가치를 인정받고 나아가 축산업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계**